

# 학교밖 청소년의 부모 지지 및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민정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

##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Neglect on Career Maturity of Out-of-school Youth: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and Core Self-Evaluations

Min-Jung Park  
Policy Research Team, Chungbuk Women Foundation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나 방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2020년 7월에서 8월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130부를 SPSS 25.0 등으로 분석하였다. 직접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모의 지지와 방임은 모두 진로성숙도에 정(+), 핵심자기평가 중 자아존중감만이 진로성숙도에 정(+), 부모의 지지만이 또래애착에 정(+),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 부모의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매개효과가 검증된 경로는 '부모지지->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지지->또래애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방임->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방임->또래애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등이다. 다양한 제도적 개입 장치를 통한 청소년 자아존중감 향상에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의 노력 방향도 자녀들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부모는 자아존중감의 재인식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성숙도가 개선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education system has focused on curbing the student dropout rate, but efforts must now be allocated to support career decisions by out-of-school youth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neglect, peer attachment,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in out-of-school youths. Analyzed are 130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out-of-school adolesc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1) Direct effects: first, both parental support and parental neglect affect career maturity; second, only self-esteem from among the core self-assessments affects career maturity; third, parental support affects peer attachment; fourth, parental support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self-efficacy and self-esteem, but parental neglect only affects self-esteem; and fifth, peer attachment affects both self-efficacy and self-esteem. (2) Mediation effects: when self-efficacy was included in the model, there were no paths verifying mediating effects. When it was included, four paths verified mediating effects: parental support->self-esteem->career maturity, parental support->peer attachment->self-esteem->career maturity, parental neglect->self-esteem->career maturity, and parental neglect->peer attachment->self-esteem->career maturity. These results imply that interest in, and efforts to increase, self-esteem in out-of-school youths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interventions (as well as parents' efforts) should focus on persuading children's friends and enhancing children'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Keywords** : Parental Support, Parental Neglect, Career Maturity, Peer Attachment, Core Self-Evaluations, Self-esteem, Self-efficacy, Out-of-school Youth

본 논문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원 기본연구과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Park(Chungbuk Women Foundation)

email: park6981@hanmail.net

Received December 30, 2021

Revised February 7, 2022

Accepted March 4, 2022

Published March 31, 2022

## 1. 서론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업중단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보내도록 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2014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2017년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및 제7항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처럼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학생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은 2015-2016년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가 2020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지만[1],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므로 증가 추세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중단을 억제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학교 밖으로 내쳐진 청소년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사회 전체 차원에서 경주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업중단 위험이 큰 청소년뿐 아니라 이미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도 상담지원, 교육지원,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대안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밟으며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12.27.)에 따르면[3], 학업중단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은 검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35%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편견이나 무시 등 선입견(39.5%),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28.0%), 무기력함 (24.0%), 부모와의 갈등(2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보호막을 벗어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진로탐색과 결정은 압박한 과제라는 부담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진로성숙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라고 정의되고 있는데[4],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의 신분을 떠난 상태이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진로결정과 준비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

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도 중요하다. 이처럼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주위의 선입견과 무시,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탐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 행동을 높이기 위한 개입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5].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예방에 두는 것 외에도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도록 인도하는 방향으로도 관심을 분배해야 한다.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6],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 및 변화한다[7].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요인은 제외하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핵심자기평가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가족(부모의 지지와 방임), 친구(또래애착) 요인 등이 독립적으로 진로성숙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Super(1969)는 학습자의 흥미, 성향 등 내적 요인과 부모, 교사, 환경 등의 외적 요인들 간의 관계의 진전을 통해 진로 성숙이 개선된다고 보았다[8].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관이 있으며[9],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10,11]. 둘째,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와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가 개별적 혹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구조적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동안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를 집중 조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12],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결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성숙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결정의 방향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기본개념의 검토

### 2.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Super(1953)에 의해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하는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는 개념으로 최초로 소개된 이후[13],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Crites(1971)는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로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수준[4], Savickas(1984)는 진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고, 나이에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발달 과업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로 진로성숙도를 정의하고 있다[14]. 진로성숙도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한 개인의 진로에 관련한 준비도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Super(1963)가 개발한 측정도구인 Career Development Inventory(CDI)에서는 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정, 일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 5가지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데[15], 여기에 Crites(1971)는 태도와 능력의 영역을 추가하였다[4]. Westbrook(1985)은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으로 진로결정, 진로행동, 진로 중요성, 자신에 대한 지식, 진로 문제, 직업 가치에 대한 지식, 선호 직업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였다[16]. 진로성숙의 세부 하위 요소에 대한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진로성숙도 검사들은 크게 태도와 능력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Betz(1988)는 진로탐색과 같은 행동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보았다[17]. Lim et al.(2001)은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 및 행동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18]. 태도요인은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능력요인으로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요인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18].

## 2.2 부모의 지지와 방임

개인이 접하는 환경 중에서도 가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환경으로서, 가정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이다[19]. 부모 지지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수용과 승인을 받고 있다는 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취하는 행동이나 태도이다[20]. 진로와 관련하여 Lee(2009)는 부모지지를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제적 지지,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진로의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경험적 지지,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에 대화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화적 지지, 진로와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며 의견을

경청해주는 정서적지지 등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진로관련 변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진로지지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정서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21]. 부정적인 부모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방임은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제공 실패, 안정된 애착, 인지기능, 자기개념, 대인관계, 정서 조절 등 다양한 기초적인 발달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22].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고통은 자녀의 정신건강, 사회부적응, 범죄 행동 등 삶의 전반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23].

## 2.3 또래애착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맺고 있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22]. 이와 연계하여 또래들과 감정 및 사고를 교류하는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된 또래와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또래 애착이라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25]. 애착의 대상은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되는데,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진행되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또래와의 애착관계로 전환되는 시기이다[26]. 또래애착은 학교생활로 인한 교류가 끊어진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있어서 안정성 있는 또래와의 지지적 환경과 소통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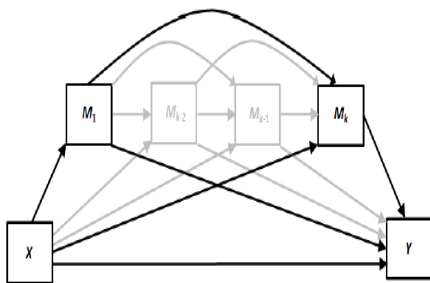
## 2.4 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란 자신의 핵심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의미하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객관적인 외부환경을 인식하는데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28]. 이는 '자기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기본적'이며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핵심자기평가는 자아존중감(self-esteem), 일반화된 자기효능감(generalized self-efficacy), 신경성(neuroticism), 통제 위치(locus of control)등의 4가지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29].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체적 평가에 따라 형성되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 통제 위치는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며 신경

성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동을 한다[30].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주어진 일을 자신감 있게 처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자신이 맡은 직무가 복잡해도 스스로 일정과 계획을 설정하며[29], 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28].

### 3.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개발

본 연구는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 부모의 지지나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둘째 또래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셋째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넷째 부모의 지지와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부모의 지지와 방임이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여섯째 또래애착이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지지나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가 개별적 혹은 순차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지, 즉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note: X(parental support and neglect), Y(career maturity), M1(peer attachment), M2(core self-evaluation)

Fig. 1. Research model

#### 3.1 직접효과

##### 3.1.1 부모의 지지 및 방임과 진로성숙도

부모는 자녀의 역할모델로서 자녀에게 직업적으로 동

기를 부여하고 직업정보와 진로발달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31].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적인 발달과 진로발달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며[32], 부모지지가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34]. 부모는 부모지지를 통해 자녀의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진로계획수립,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진로성숙도를 개선시킨다[35,36]. 또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신적 지원도 중요할 것이다[37].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학교의 개입을 받고 있지 않기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38], 부모지지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39]. 부모의 방임이 클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낮아지거나[40,41],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인 독립성이 감소하고 있다[42]. 반면 부모방임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43-45].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1.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2 또래애착과 진로성숙도

또래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이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을 보일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의사소통에 관한 준비도와 진로결정을 위한 주체성, 독립성, 확신성이 높고,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의 지지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고 그 결과 진로성숙도도 상승한다[47].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48], 고등학생의 또래애착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9].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3 핵심자기평가와 진로성숙도

Koumoundourou et al.(2011)은 청소년의 진로의 사결정에 대하여 핵심자기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내었다[50]. 핵심자기평가의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유용한 변인이며, 진로의 성취행동이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발달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51]. 자기효능감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더욱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 대처할 수 있기에 청소년의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52].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진로탐색행동을 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숙한 태도로 임하게 된다[53].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진로 탐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연구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10,54,55]. 또 다른 핵심자기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정도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5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인지적 균형을 이루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여 인지적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균형이론을 적용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긍정적으로 진로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며 성숙한 진로태도의 발달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57]. 학업 중단 후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58],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는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4 부모의 지지 및 방임과 또래애착

부모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이러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인하여 청소년은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애착도 안정적인 것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일관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59].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 학대당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61].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방임이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62].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5와 6을 설정한다.

**가설 5.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5 부모의 지지 및 방임과 핵심자기평가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제고하지만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된다[61]. 역기능 가정(dysfunctional family)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낮게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다[6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7과 가설 8을 설정한다.

**가설 7.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6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이 있다[9]. 또래 사이에서 비효능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은 수용 받지 못하고 사회적 철회를 느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므로[64], 또래애착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Won(2018)은 또래애착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9를 설정한다.

**가설 9.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또래관계가 매개한다는 연구가 있으며[65], 학대피해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연구도 발표되었다[1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0과 가설 11을 설정한다.

**가설 10.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의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11.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의 방임이 진로성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진로와 관련된 부모의 지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 태도를 고양하여 진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면서 진로에 관련된 불안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부모 지지는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흥미, 진로 관련 의지, 진로 관련 목표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66]. 자아존중감은 부모지지와 진로성숙 간에 관계를 매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지지와 부모방임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즉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성숙도가 높다. 가족환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가족환경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성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68].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69]. 고등학생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이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반면 Lee et al.(2018)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은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할 때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70]. 학대피해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1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2와 가설 13을 설정한다.

**가설 12.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는 부모의 지지가 진로성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13. 청소년의 핵심자기평가는 부모의 방임이 진로성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71,72].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4와 가설 15를 설정한다.

**가설 14.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는 부모의 지지가 진로성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가설 15.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는 부모의 방임이 진로성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변수의 측정**

**4.1.1 진로성숙도**

Lee, Han(1997)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을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의 다섯 가지로 구성하고 있다[73]. 자신의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목적성은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결정성 3개 문항은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확신성 2개 문항은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준비성 3개 문항은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나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독립성 2개 문항은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Cronbach’s  $\alpha$ 는 .604였다.

**4.1.2 부모의 지지와 방임**

부모의 지지는 진로와 관련하여 Lee(2009)가 개발한 5가지 부모지지 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선정하였다[20]. 정서적 지지 3문항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셨다’,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셨다’, 경제적 지지 3문항은 ‘용돈을 주셨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셨다’, ‘공부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셨다’, 방임 3문항은 ‘나보다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

섰다', '늦게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 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아이젠 값이 1이상인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본 연구에서도 부모 지지와 부모 방임의 두 개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부모 지지가 .915, 부모방임이 .871로 나타났다.

#### 4.1.3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74)에서 사용한 다음과 같은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의 Cronbach's  $\alpha$ 는 .904로 나타났다.

#### 4.1.4 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신경성, 통제 위치 등의 4가지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29], 본 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 중 긍정적 요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udge et al.(1998)이 개발한 측정도구 [29]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 3개 문항(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아존중감 5개 문항(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사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자기효능감 .767, 자아존중감 .890으로 나타났다.

#### 4.1.5 통제변수

성차별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75],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76],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교를 그만 둔 시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3을 부여하는 순서변수로 측정하였다.

## 4.2 표본의 선정과 특성

본 조사에 앞서 전문가 3인에 의뢰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아, 문항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COVID-19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개인적으로 설문조사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울산지역의 2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공식적으로 협조에 동의한 8개 장소에서, 응답자와 1:1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하기 전에 조사의 취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3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71명으로 54.6%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한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Table 1. Respondents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59	45.4
	Female	71	54.6
Time to guit school	Elementary	17	13.1
	Junior high	35	26.9
	Senior high	78	60.0
	All	130	100.0

## 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셋째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직접효과 검증은 관련 변인만을 모형에 투입하여 SPSS 25.0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77]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이용하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또래애착과 핵심자기평가의 이중매개효과,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를 함께 파악하였다. 매개효과(ab)의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해야 하는 Sobel test 대신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표본분포의 비정규

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Sobel test 보다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 검정력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 과정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효과부터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95%의 신뢰구간과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의 기준을 5% 이하의 유의확률로써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설문응답자로부터 자기 보고 방식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 응답치를 수집하였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 중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적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측정문항을 투입하여 Kaiser정규화가 있는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 추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전체 변량의 11.66%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배적인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78].

## 5. 실증분석결과 및 논의

### 5.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든 변인들의 왜도 통계량이 -.244에서 -.955, 첨도 통계량이 .022에서 1.854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었다.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지지(2.876)보다 부모방임(3.169)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핵심자기평가인 자기효능감(2.963)이 자아존중감(2.844)보다 조금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로성숙도의 평균값은 2.44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방임과 자아존중감 두 개의 변인만이 진로성숙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모 방임이 진로성숙도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아존중감과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Table 2. Table title

Var.	Mean	S.E.	PN	PA	SEF	SES	CM
PS	2.87	.726	.346**	.381**	.310**	.407**	.145
PN	3.16	.580	1	.143	.114	.177*	.197*
PA	2.96	.666		1	.449**	.493**	.068
SEF	2.96	.551			1	.808**	.150
SES	2.84	.645				1	.192*
CM	2.44	.400					1

note:1. PS(parental support), PN(parental neglect), PA(peer attachment), SEF(self efficacy),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2. \*. p<.05, \*\*. p<.01

### 5.2 가설의 검증

#### 5.2.1 직접효과 : 가설1~가설9

가설은 크게 직접효과와 매개효과(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검증하고 Table 3에는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부모 지지와 부모 방임이며, 핵심자기평가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므로 모든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해당 변수의 직접효과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를 사용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지지( $\beta=.179, p<.05$ )와 방임( $\beta=.201, p<.05$ )은 모두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의 지지와 방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연구 흐름대로 부모의 지지와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이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도 부모의 방임이 클수록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낮아진다는 연구[40,41]와 부모방임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43-45] 등으로 나누어져서 일치된 결론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부모의 방임을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진로를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1은 지지가 되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또래애착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가 합리적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46-49]와는 다른 결과를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즉 이미 학교를 이탈하여 학교의 교육관계가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은 또래애착의 수준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된다.

핵심자기평가 중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 $\beta=.186, p<.05$ )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10, 51-55],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은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57,58]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이전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많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반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취급하는 자아존중감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4는 부분 지지되었다.

부모의 지지는 또래애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beta=.406, p<.01$ ), 부모의 방임은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애착도 안정적이라는 결과[59]가 발표되었고 이와 동일하게 본 연구도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정신적 유대의 연결점으로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지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통제적이면 또래애착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60-62]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부모의 방임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이미 학교를 이탈하였다는 부담으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의 방임에 대해서 무관심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래애착을 피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의 방임이 또래애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5는 지지되고 가설 6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 $\beta=.316, p<.01$ )과 자아존중감( $\beta=.415, p<.01$ )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지지를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의 방임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177, p<.05$ ). 이는 부모의 방임은 소극적인 학대의 형태이지만 적극적 형태의 학대와는 달리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 7은 지지되고 가설 8은 부분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은 자기효능감( $\beta=.461, p<.01$ )과 자아존중감( $\beta=.504, p<.01$ )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관계가 약화된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 학교, 사회의 지지보다는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의 효과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써 가설 9는 지지되었다.

Table 3. Direct effects

H	Path	$\beta$	t	p
1	PS→CM	.179*	2.114	.036
2	PN→CM	.201*	2.403	.018
3	PA→CM	.020	0.234	.816
4	SEF→CM	.146	1.730	.086
5	SES→CM	.186*	2.213	.029
6	PS→PA	.406**	5.034	.000
7	PN→PA	.145	1.668	.098
8	PS→SEF	.316**	3.719	.000
9	PN→SEF	.115	1.297	.197
10	PS→SES	.415**	5.081	.000
11	PN→SES	.177*	2.021	.045
12	PA→SEF	.461**	5.719	.000
13	PA→SES	.504**	6.422	.000

note:1. PS(parental support), PN(parental neglect), PA(peer attachment), SEF(self efficacy),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2. \*,  $p<.05$ , \*\*,  $p<.01$

### 5.2.2 매개효과 : 가설10~가설15

이중매개효과는 두 개의 매개변수 간 인과관계도 포함하여 검증한다.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Model 6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이중매개효과와 단일매개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부모지지와 부모방임)와 두 번째 매개변수(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가 각각 2개씩이므로 4개의 조합이 나온다. 자기효능감을 모형에 포함한 경우는 매개효과가 검증되는 경로가 없었다. Table 4와 Table 5는 자아존중감을 두 번째 매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매개효과와 결과를 요약하였다.

Table 4에서는 부모지지를 독립변수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지지(PS)->또래애착(PA)->진로성숙도(CM)’와 ‘부모지지(PS)->자아존중감(SES)->진로성숙도(CM)’의 두 가지 경로를 분석하였다.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경유하는 경우는 -.0313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819, .0135]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0은 기각되었다. 반면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경유하는 경우는 .0265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072, .0738]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부분 지지되었다.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관계를 나타내는 ‘부모지지(PS)->또래애착(PA)->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CM)’ 경로는 .0170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035, .0498]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4는 부분 지지되었다.

Table 4. Mediation effects : PS-PA-SES-CM

Path	Effect	BootSE	LLCI	ULCI
TOTAL	.0121	.0303	-.0476	.0721
PS→PA→CM	-.0313	.0241	-.0819	.0135
PS→SES→CM	.0265	.0207	.0072	.0738
PS→PA→SES→CM	.0170	.0134	.0035	.0498

note: PS(parental support), PA(peer attachment),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Table 5에서는 부모방임을 독립변수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방임(PN)->또래애착(PA)->진로성숙도(CM)’와 ‘부모방임(PN)->자아존중감(SES)->진로성숙도(CM)’의 두 가지 경로를 분석하였다. 부모방임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경유하는 경우는 -.0112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423, .0105]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기각

되었다. 반면 부모방임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경유하는 경우는 .0153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070, .0573]으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은 부분 지지되었다.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관계를 나타내는 ‘부모방임(PN)->또래애착(PA)->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CM)’ 경로는 .0102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의 범위가 [.0040, .0331]로 나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매개효과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선행 연구[10, 38, 45, 65-72]들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중매개효과 존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15는 부분 지지되었다.

Table 5. Mediation effects : PN-PA-SES-CM

Path	Effect	BootSE	LLCI	ULCI
TOTAL	.0143	.0203	-.0204	.0603
PN→PA→CM	-.0112	.0133	-.0423	.0105
PN→SES→CM	.0153	.0172	.0070	.0573
PN→PA→SES→CM	.0102	.0093	.0040	.0331

note: PN(parental neglect), PA(peer attachment), SES(self esteem), CM(career maturity).

## 6. 결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학업중단을 억제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나 방임, 또래애착, 핵심자기평가 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20년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130부를 대상으로 SPSS 25.0과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는 부모지지보다 부모방임의 평균값이 더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로성숙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지지와 방임은 모두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핵심자기평가 중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부모의 지지만이 포래앳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부모의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부모의 방임은 자아존중감에게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포래앳착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을 모형에 포함한 경우는 매개효과가 검증된 경로가 없었다. 매개효과가 검증된 경로는 다음의 4가지이다: ‘부모지지-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지지-포래앳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방임-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부모방임-포래앳착-자아존중감-진로성숙도’.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회라는 쉽지 않은 환경에 직면한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의 지지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및 포래앳착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관련 기관의 상담적 개입 장치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중단을 경험하게 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하락에 취약하도록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제도적 개입 장치를 통하여 사회에서 청소년이 체감하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지지가 포래앳착,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감안하여 부모의 노력도 자녀의 친구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자녀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고양하는 방식이 되도록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자아존중감을 재인식하고 강화함으로써 진로성숙도가 개선된다는 점을 알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방임하는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충분히 진로성숙도가 향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포래앳하고 교류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에 필요한 관계 맺기와 책임감, 의무감 등 정서적인 성

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선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런 조짐이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면서 충동적인 판단을 유예시키도록 포래앳와의 학업 외 활동, 자신의 역량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진로상담 과정 등의 기제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개입 과정을 거쳐 진로성숙도가 향상된 청소년이라면, 학교 밖으로 나온 후에도 현실의 장애에 부닥치면서 복귀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때 복귀의 사결정을 하는데 발생하는 심리적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 밖을 선택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게 하지만, 학교 밖이라는 결정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최대한 짧게 하여 공백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학교 밖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청소년에게 관련 기관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며, 학교 밖을 나가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시기에는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업교육, 직업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부적응이나, 비행은 이유로 학교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보다 자신의 꿈이나 계획으로 인해 학교 밖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청소년이 꿈꾸고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관련 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유형별로 탄력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학업형의 청소년에게는 복학,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과 같은 학업이나 진학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 근로형의 청소년에게는 진로검사-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과 자립생활관, 그룹홈 연계 등과 같은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 비행형이라고 보여지는 청소년에게는 가족상담, 인간관계개선 등의 심리건강 관련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근로형과 학업형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원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운영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예산 확대를 위한 정부 설득으로 해결해야 하고 전문성

부족은 과목별 전문 외부 강사를 확보하는 아웃소싱과 기존 교원들의 교육을 통한 심리, 직업, 진학 관련 상담 인력의 전문화로 해결해야 한다. 실행지침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업무 분장의 명확성, 업무 매뉴얼 의 정비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부터 시작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만 귀인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 예산 확대를 위한 정부 설득 등을 통한 능동적 태도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축소시키고 국가의 미래 동력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학교 당국부터 학교 밖 기관까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부터 사회적 낙인이 주어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사 대상자 선정과 성실한 응답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표본크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본 크기 증대, 울산광역시가 아닌 대상 지역의 확대 등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둘째, 핵심자기평가의 하위 요인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여 연구모형 설계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핵심자기평가 요인인 신경성과 통제 위치를 추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21 Basic Statistics of Education, accessed Feb. 3, 202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88238>
- [2] J. S. Kim,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prob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s behavior for out-of-school youth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4, No.3, pp.27-49, 2017.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ess Release, accessed Feb. 3, 202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09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095)
- [4] J. O. Crites,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20, No.1, p.82, Sept. 1971. DOI:<https://doi.org/10.1002/j.2164-585X.1971.tb02014.x>
- [5] S. H. Zheng, K. E.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neglect on career maturity of out-of-school you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3, No.1, pp.151-168, 2021.
- [6] R. W. Lent,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John Wiley & Sons : New York, pp.101-127, 2005.
- [7] M. N. Jung, J. E. Rho,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3. pp.133-162, 2016.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6.27.3.133>
- [8] D. E. Super,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1, No.1, pp.2-9, Mar. 1969.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6900100101>
- [9] H. G. Lee, H. W. Kim, E. A. Kim,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5, No.2, pp.443-466, 2013.
- [10] K. R. W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and their career maturity: Meditation analyses on school bonding, peer attachment,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64, pp.1-24, 2018. DOI: <https://doi.org/10.24300/jkscw.2018.12.64.1>
- [11] S. S. Kim, Y. S. Youn,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Enneagram Studie*, Vol.9, No.1, pp.155-174, 2012.
- [12] J. H. Noh, S. H. Moon, "The Career Traits and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of Out-of-School Youth", *Forum For Youth Culture*, Vol.58, pp. 61-86, 2019.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9.04.58.61>
- [13] D. E. Super,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8, No.5, pp.185-190, 1953. DOI: <https://doi.org/10.1037/h0056046>
- [14] M. L. Savickas, "Measuring Career Maturity: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32, pp.222-231, 1984. DOI: <https://doi.org/10.1002/j.2164-585x.1984.tb01585.x>
- [15] D. E. Super,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Early Career Behavior: A First Formulat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Vol.41, No.9, pp.775-780, 1963. DOI: <https://doi.org/10.1002/j.2164-4918.1963.tb02394.x>
- [16] B. W. Westbrook, "What research says about career maturity: A response to Ci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6, No.3, pp.239-250, June 1985.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03-X](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03-X)
- [17] N. E. Betz,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

- maturity, In W. B. Walsh,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New Jersey, 1988.
- [18] E. Lim, Y. Jung, K. Sang, A Technical Report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orea, 2001.
- [19] S. K. Lim, H. S.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Vol.19, No.3, pp.169-183, 2007.
- [20] D. L. Thomas, V. Gecas, A. Weigart, E. Rooney, Family socialization and the adolescent: Determinants of self-concept, conformity, religiosity and counterculture value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74.
- [21] S. H. Lee, "Development of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3, pp.1539-1553, 2009.
- [22] A. Ward, V. Mcphersong, "Diversity in adjustment of maltreated children: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t functioning",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6, pp.796-812, 2006.
- [23] A. R. Colman, S. C. Widom,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Vol.28, No.11, pp.1133-51, 2006.
- [24] J.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39, pp.350-373, 1958.
- [25] H. Freeman, B. B. Brown,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0, No.6, pp.653-674, 2001.
- [26] Y. N. Koh, "The relationship among father, mother,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6, No.2, pp.111-131, 2008.
- [27] H. Y. Oh, H. J. Park, S. H. Ji, "Development of School Dropout Academic Re-entry Group Counsel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9, No.3, pp.545-571, 2012.  
DOI: <http://dx.doi.org/10.16983/kjsp.2012.9.3.545>
- [28] T. A. Judge, J. E. Bono, A. Erez, E. A. Locke, "Core self-evaluations and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concordance and goal attain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90, No.2, pp.257-268, 2005.  
DOI: <http://doi.org/10.1037/0021-9010.90.2.257>
- [29] T. A. Judge, A. Erez, J. E. Bono, "The power of being positive: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self-concept and job performance", *Human Performance*, Vol.11, No.2/3, pp.167-187, 1998.
- [30] A. Erez, T. A. Judge,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 to goal setting, motiv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6, No.6, pp.1270-1279, 2001.  
DOI: <http://doi.org/10.1037/0021-9010.86.6.1270>
- [31] S. L. Turner, A. Alliman-Brissett, R. T. Lapan, S. Udipi, D. Ergun,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Vol.36, pp.83-94, 2003.  
DOI: <https://doi.org/10.1080/07481756.2003.12069084>
- [32] S. R. Kim, J. C. Le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 No.2, pp.393-407, 2007.
- [33] L. Y. Flores, L. M. O'Brien, "The career development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women: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9, No.1, pp.14-27, 2002.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49.1.14>
- [34] J. H. Lee, E. M. Mun, "The Effects into Juvenil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 Efficacy by Parental Career Suppor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4, No.1, pp.173-188, 2011.
- [35] L. B. Otto, "Youth perspectives on Parental career influ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7, No.2, pp.111-118, 2000.  
DOI: <https://doi.org/10.1177/089484530002700205>
- [36] J. Y. Park,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 2019.
- [37] J. H. Kim, H. J. Choi,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Life Satisfaction of Out-of-school Youth: Multiple Mediation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1, pp.343-362,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21.343>
- [38] J. H. Lee, K. S. Lee, Kyeong-Sang, "The Effects of Parent Support o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6, No.1, pp.143-153, Feb. 2018.
- [39] S. K.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on the Relation between of Parental Support, Peer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Out-of-School Youth*,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 2017.
- [40] B. S. Park, S. B. Yang,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3, pp.139-146, 2017.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3.139>

- [41] M. R. Park, E. J. Yang,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self-identity and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 pp.263-284,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01.24.1.263>
- [42] E. H. Jung, *Effects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elf-esteem Level and Their Future-careers*, Doctoral Dissertation, Chongsin Univ., 2012.
- [43] H. S. Lee, H. J. Sunwoo,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lescent's Career Identity: Neglect and Ego-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6, pp.57-73, 2015.
- [44] S. Y. Noh, N. S. Yu, "Relationship of parenting styl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peer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self-identity with career ident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6, No.5, pp.63-69, 2018.  
DOI: <http://dx.doi.org/10.19031/jkheea.2018.06.30.2.21>
- [45] S. H. Jung, E. M.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neglect on career maturity of out-of-school you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3, No.1, pp.151-168, 2021.  
DOI: <https://doi.org/10.20970/kasw.2021.73.1.006>
- [46] K. H. Lee, M. H. Youn, "The Effect of Parent Fact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Mature Career Choice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6, No.1, pp.175-199, 2011.
- [47] A. R. Kim, J. H. Lee, B. Y. Choi,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Gender,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3, pp.843-862, 2010.
- [48] H. S. Jhon, H. J. Lim, K. H. Yi,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Seoul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6, No.4, pp.97-124, 2016.
- [49] S. A. Kwon, Y. S. Park, J. Y. Song, "The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of the high school student :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28, pp.123-146, 2014.
- [50] G. Koumoundourou, I. Tsaousis, K. Kounenou, "Parental influences on Greek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The mediating role of core self-evalu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19, No.2, pp.165-182, 2011.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10385547>
- [51] G. Hackett,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ume 18, Issue 3, June 1981.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
- [52] K. H. Lim, "The Relationships of Home, School, and Individual Variables to Learned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5, No.2, pp.473-507, 2004.
- [53] W. S. Suh, K. S. Kim, S. W. Kim,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and Teacher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Academic Attitud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4, pp.693-717, 2021.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693>
- [54] S. J. Choi, "Latent Growth Curve Model on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SES, School Record of Adolescent", *Studies on Korean youth*, Vol.18, No.3, pp.31-57, 2006.
- [55] S. C. Choi, K. R. Won, "The Effect of Adolescents'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Career Matur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44, pp.35-62, 2013.
- [56]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57] A. K. Korman, "Self-esteem variable in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0, No.6, pp. 479-486, 1966.  
DOI: <https://doi.org/10.1037/h0024039>
- [58] H. A. Sim,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Out-of-school yout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 pp.529-550,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529>
- [59] C. Y. Park, M. S. Ha,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Peer Attachment of Early Adolescence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68, No.3, pp.651-680, 2020.
- [60] Y. S. Jang, Y. G. Eom,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Attachment with Parents and Peer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7, No.4, pp.3-16, 2009.
- [61] I. J. Chung, H. S. Park, I. H. Ku,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Abuse to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 No.3, pp.223-244, 2006.
- [62] J. Y. Song, K. H. Jung,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on Smart Phone Addiction among School Dropout Youths -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10, No.3, pp.369-392, 2021.  
DOI: <http://dx.doi.org/10.30974/kaice.2021.10.3.16>
- [63] D. I. Min, J. M. Y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ysfunctional Family and Self-Efficacy perceived by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 Development*, Vol.22, No.2, pp.45-66, 2006.
- [64] H. J. Cho, J. Y. Lee, C. S. Lee, "Development of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 for the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3, No.3, pp.345-359, 2002.
- [65] H.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Career Maturity for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Vol.27, No.4, pp. 109-119, 2015.  
DOI: <https://doi.org/10.19031/jkheea.2015.12.27.4.109>
- [66] R. W. Lent, S. D. Brown, G. Hackett,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pp.79-122, 1994.
- [67] J. W. Cha, H.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6, No.3, pp.53-67, 2014.
- [68] H. L. Chang, R. H. Lee,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7, pp.189-218, 2019.  
DOI: <http://dx.doi.org/10.20993/jssw.47.7>
- [69] M. R. Kim, H. J. Le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Maturity in Career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 No.1, pp.287-306, 2015.
- [70] C. S. Lee, E. J. Lee, H. S. Kwak,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Aware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 pp.289-297,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1.030>
- [71] S. A. Shin, J. S. Chun, "The influence of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mediated by self-efficacy",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7, No.3, pp.111-136, 2015.
- [72] S. A. Kwon, Y. S. Park, J. Y. Song, "The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on Career Maturity of the high school student :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28, pp.123-146, 2014.
- [73] K. H. Lee, J. C. Han, "Scale development of career attitud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8, No.1, pp.219-255, 1997.
- [74] H. S. Ha, J. G. Hwang, S. E. Kim, Y. H. Lee, 2020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2020.
- [75] H. R. Lee, S. M. Kim, "The Effect of Educational Barrier Perceptions and Career Myths on Career Development for High School Girls'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aearch*, Vol.20, No.3, pp.55-71, 2007.
- [76] Y. M. Choi, M. H. Lee, "A Study on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9, No.2, pp.171-187, 2011.  
DOI: <http://dx.doi.org/10.35151/kyci.2011.19.2.009>
- [77] A. F. Hayes, The PROCESS macro for SPSS, SAS, and R, accessed Feb. 3, 2022.  
<https://www.processmacro.org/index.html>
- [78] P. M. Podsakoff, S. B. MacKenzie, J. Y. Lee, N. P. Podsakoff,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8, pp.879-903,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88.5.879>

박민정(Min-Jung Park)

[정회원]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문학박사)
- 2018년 2월 ~ 2019년 6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차장
- 2019년 10월 ~ 2022년 1월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 연구위원(팀장)
- 2022년 1월 ~ 현재 :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관심분야>

가족, 가정관리, 여가, 일·생활 균형